



# 존재하되 돌보이면 안된다

정해영

KBO리그 통산 최연소 100세이브 주인공인 KIA 마무리 정해영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팀 승리를 위한 목표를 위해 달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최연소 100세이브’ KBO 새 역사 쓴 KIA 마무리 정해영 “동료들 덕분에 대기록 달성... 승리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해영이 ‘조용한 활약’을 예고했다. 정해영은 타이거즈의 약점이었던 마무리 자리에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기움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12번째 등판에 나선 정해영은 팀의 6-4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이날 세이브로 정해영은 KBO 통산 19번째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 이날 세이브는 정해영의 통산 100번째 세이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해영은 임창용이 가지고 있던 ‘23세 10개월 10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22세 8개월 1일’이라는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24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기록이다. 정해영은 3·4월 KBO 투수 중 유일하게 1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KBO 월간 MVP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눈길 끄는 기록의 주인공으로 MVP후보가 됐지만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도 ‘월간 10-10’과 ‘평균자책점 1.47, 4승’의 활약을 하면서 집안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동료들의 활약에 묻혔다”며 웃은 정해영은 “능답이다. 사실 내가 돌보이면 안 된다. 내가 돌보이면 그건 힘든 경기다. 돌보이지 않는 게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다 잘한 후보고 기록으로만 봐도 인정하게 된다. 그래도 팀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에 좋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정해영은 입단 첫해부터 팀의 불펜 위기 속 필승조 역할을 했고, 이내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KIA 뒷문을 책임져왔다. 100세이브라는 환희의 순간도 있었지만, 경기 마지막 순간 가장 아픈 패배로 고개를 숙이는 날도 있었다. 정해영은 “패배를 하면 아프지만 지나간 것이다. 잘한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 성격인 것 같다. 성격 상 오래 빠져드는 스타일은 아니다”며 마무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그는 얼마 전 동료들에게 ‘100세이브’ 기념으로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 마무리라는 힘든 자리에서 꾸준한 활약을 할 수 있는 힘은 ‘동료’라는 게 정해영의 설명이다. 정해영은 “내 힘으로 한 세이브가 100개 중에 몇 개일까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될 것 같다. 중간 투수들이 잘 연결해 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100개까지 할 수 있었다. 나도 그렇고 앞에서 (필승조) 형들도 그 역할을 3-4년째 하고 있으니 올 시즌 준비가 더 잘된 것 같다”고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해영은 마무리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도 이야기했다. 정해영은 “‘꾸준하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3년 50경기 이상 나와서 20세이브 이상을 했다. 올 시즌 팀이 워낙 좋은 출발을 해서 기록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뒤에

서 받쳐줘서 팀이 올라간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최지민도 정해영이 보여주는 ‘마무리의 힘’을 언급했다. 최지민은 “마무리라는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더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다. 확실한 마무리가 없으면 누가 어느 상황에 나갈지 모르니까 힘든데 마무리가 잡아주니까 잘 던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정해영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고지에 오른 정해영은 ‘승리’를 목표로 남은 시즌 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정해영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야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스포츠다. 포수 믿고 던지면서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 제일 뒤에서 팀을 잘 받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정후 다시 질주... 빅리그 첫 3안타

콜로라도전 1번 타자 중견수 선발... 샌프란시스코 5-0 승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바람처럼 질주해서 빅리그 첫 3안타 경기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8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 필드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곁들였다. 전날 2안타에 이은 이를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활약이자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투수의 무덤’이자 ‘타자의 천국’인 쿠퍼스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내야 안타 2개가 포함된 3안타 경기를 펼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2에서 0.264(140타수 37안타)까지 올라갔다.

시즌 초반 잘 맞는 타구가 연달아 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불운에 울었던 이정후는 빗맞은 타구 2개가 내야 안타로 연결되는 행운을 맞았다. 1회 첫 타석에서 나온 이날 경기 첫 안타는 잘 맞은 정타였다. 이정후는 콜로라도 선발 다코타 허드슨의 싱커를 공략, 총알 같은 땅볼 타구로 1루와 2루 사이를 열었다. 그러나 후속 타자 타이로 에스트라다의 병살타로 흡을 밟지는 못했다. 3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팀이 1-0으로 앞선 4회 1사 1·2루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이정후는 허드슨의 초구 슬라이더를 건드렸고, 빗맞은 타구는 느리게 3루수 앞으로 굴러갔다. 전

력 질주한 이정후는 1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이정후의 내야 안타로 만루를 채운 샌프란시스코는 에스트라다의 내야 땅볼에 3루 주자가 흡을 밟아 2-0으로 점수를 벌렸다. 이정후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2타점 적시타에 흡을 밟아 4-0으로 달아나는 득점까지 올렸다. 이정후의 빅리그 14번째 득점이다. 6회 1사 1루에서 맞이한 4번째 타석을 빅리그 두 번째 병살타로 마친 이정후는 8회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닉 미어스의 초구를 공략해 1루수 쪽으로 땅볼을 굴렸고, 이번에도 온 힘을 다해 1루로 뛰었다. 미어스는 1루에 커버를 들어왔으나 1루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공을 뒤로 흘렸고, 기록원은 이정후에게 내야 안타를 줬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를 5-0으로 제압하고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 ‘배드민턴 퀸’ 안세영 무릎 통증 ‘파리 동행’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배드민턴 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부상 정도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안세영은 지난 7일 밤 인스타그램에서 “제 부상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지 궁금하시겠다고 생각돼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후 (받은 검진에서) ‘2~6주간 재활 후 복귀할 수 있다’는 진단과 다르게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작년) 12월 월드컵 투어 파이널 이후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면서 “슬개근 부분파열이 처음 진단 내용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질 수 없고 올림픽까지 최대한 유지해서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시합의 결과보다는 올림픽에 초점을 두고 통증에 적응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첫 검진에서 짧게는 2주 재활 진단이 나오며 큰 부상이 아닌 줄 알았지만, 재검진 결과 2024 파리 올림픽에도 영향이 불가피함을 알게 됐다. 안세영은 “어렵사리 털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안세영은 작년 11월 일본 마스터스를 통해 실전에 복귀한 뒤 기록을 보였다.

올해 1월 말레이시아오픈에서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으나 그다음주 인도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이 겹쳐 기권했다. 3월 프랑스오픈을 제패한 뒤 출전한 전영오픈에선 체력 난조로 준결승전에서 탈락했다.

4월 아시아개인선수권에선 8강 탈락했고 이달 4일 세계여자단체선수권(우버컵) 준결승전에선 아예 코트를 밟지 못했다. 안세영이 빠진 여자 대표팀은 결국 인도네시아에 패해 최



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다만 안세영은 우버컵 준결승전 결장은 무릎 통증이 아닌 장염 증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이번 우버컵에서는 무릎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 증세로 컨디션 난조가 있었다. 선수로서 자기관리가 중요한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남은 시간 동안 결과보다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부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세영은 인스타그램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사진)이라고 적힌 왼쪽 손등 사진을 함께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별들의 잔치’ PGA 챔피언십

우즈·2009년 우승 양용은·LIV 소속 등 154명 출전

다음 주 개막하는 메이저 골프대회 PGA 챔피언십의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됐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8일(한국시간) 타이거 우즈(미국·사진),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를 포함해 154명의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06회를 맞는 PGA 챔피언십은 현지시간 5월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2021년 자동차 사고로 오랫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우즈는 세계랭킹이 801위까지 밀렸지만, 2000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의 자격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 이경훈과 함께 2009년 이 대회 우승자 양용은이 출

전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대립각을 세우는 LIV골프에서는 1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작년 대회 우승자 브룩스 켈퍼(미국), 세계랭킹 5위 온 램(스페인) 패트릭 리드(미국), 딘 버미스터(남아프리카공화국), 루커스 허버트(미국), 아드리안 메통크(폴란드), 대비드 푸이그(스페인) 등이 초청장을 받았다. 호아킨 니만(칠레)은 이미 작년 12월에, 테일러 구치(미국)는 최근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주 개막하는 PGA 투어 웰스 파고 챔피언십과 머틀비치 클래식에서 PGA 챔피언십 출전권이 없는 선수가 우승한다면 PGA 챔피언십 막차를 탈 수 있다. /연합뉴스